

아산재단과의 인연 통해

지혜를 배우다



2020년 2월, 아산재단의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정몽준 이사장님, 우리나라를 이끄는 리더인 재단 이사님들과 짧지만 목직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빛나는 인생 선배들께서는 장학생들에게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님의 자서전인 <이 땅에 태어나서>를 선물로 주시며 설립자님의 강인한 정신을 배우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자서전은 빈손으로 시작했으면서도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취를 이룬 ‘아산 정신’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길을 헤쳐 나가야 하는 저 같은 과학도는 아산 정신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동물의 본능적인 행동과 항상성 유지라는 생명 현상을 뇌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밝히려는 신경생물학도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울증과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만 등의 질환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연구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알아내는 일을 하는, ‘정답 없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과학도로서 나의 꿈은 불가능한 이상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진행한 연구와 비슷한 패러다임을 이용한 연구들이 발표되기도 했고, 실험을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유지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의 지혜를 믿고 필요한 일들을 찾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연구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뇌와 인공지능의 각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카이스트의 생명, 전산, 전자, 인공지능 대학원생들과 박사후 연구원들을 모아 심포지엄 모임을 창립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운 상반기를 보냈고, 2020년 말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누렸습니다.

제 연구 과제와 프로젝트들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백지에 그림을 그리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합니다. 설립자님의 자서전에는 ‘유지자사경성’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우직하게 시도해보려 합니다.

제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들에 뛰어든도록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게 해준 아산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더 고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다른 기초과학도들의 마음 또한 담아, 저희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원동력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생명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장학생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정진하겠습니다. 늘 아산재단의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

글 **김진은** 카이스트(KAIST) 생명과학과 박사과정

